

日本,長期에너지需給 再檢討

—2000年時點 需要急増으로 上向修正 必要—

경기회복에 따라 에너지需要가 급격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88년도에도 前年度와 같이 높은 증가율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日本은 '87년10월에 개정된 長期에너지需要展望을 재검토하여 上向修正해야 한다는 제안이 관계자들에게서 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의 예측보다 수요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목표년도인 2000년에는 예측을 대폭 상회하는 수요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현행계획대로라면 공급력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 格 差

작년 12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개최된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주최의 심포지움 이틀째 오후에 실시된 패넬토의의 기조발표에서 현행 에너지수요전망과 현실 사이에 2000년 시점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길 것으로 예측,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패넬토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이사장이 현행 수급전망은 「긴장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上向修正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7년 중반부터 에너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일본 통상성에 따르면 '87년도의 최종에너지소

비는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1차에너지 총공급량은 5% 증가의 신장을 보였다. 또 그 중에서도 전력의 증가율은 더욱 높아 '87년도 電力 9個社の 총 수요전력량은 6.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기사업심의회의가 예측한 '86~'95년도의 전기사업용 전력수요의 연평균 신장률이 2.5%였으므로 그 실적은 약 2.5배나 신장된 것이다.

에너지수요는 '88년도에 들어와서도 호조를 지속하여 전년도 정도의 신장률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다. 2년간 연속 약 5%, 전력에서 6% 전후의 증가가 되면 종래의 전망에 비해 그 기준점이 훨씬 올라간다. 그에 따라 장래의 수요도 현행 정부의 예측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景 氣

지난 1, 2년간의 에너지수요 증대의 배경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內需를 중심으로 한

호경기일 것이다. 경기는 '86년 11월을 고비로 하여 회복국면에 들어가, '87년 중반부터 급속히 신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형인 소재형산업의 회복이 수요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로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라 에너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가격효과도 있다. 또 에너지消費原單位の 인하가 한계점에 달해 省에너지의식의 후퇴와 아울러 에너지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 생활의 다양화, 쾌적한 환경지향의 진전에 따라 가정에서 전기기기의 사용도 증가되었다.

이런 경향은 '8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조사기관, 정부기관 등의 경기예측이 공표되고 있는데, '89년도에 실질성장률에 대해서는 4%대 후반의 신장률로 보는 견해가 많다. 가장 높은 예측은 국민경제연구협회의 것으로 현재의 호경기를 「新主導 景氣」라고 간주하고 '89년도는 5%의 신장을 예측했다. 원유가격에 대해서도 OPEC의 감산합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급격히 상승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최근의 에너지수요는 GNP의 신장률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가 호조로 추이하면 '89년도도 상당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電 源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수요예측이 2000년 시점에서 종래의 예측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판단,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장기에너지정책을 조속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정공급의 확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전력공급기반의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원설비의 리드타임은 길다. 그런 만큼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주전원으로 개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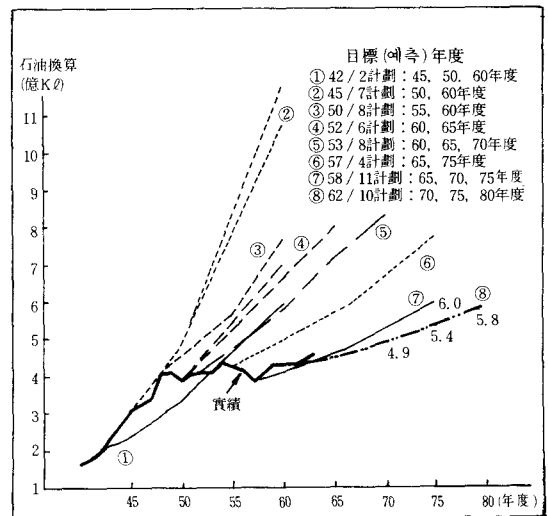
야 하는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현재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온실효과 등 CO₂ 문제가 대두되어 「'89년에는 석탄에 대한 비판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전원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제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때문에 수급예측을 上向修正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 對 應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고 장기에너지전망의 재평가를 지적받은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기획조사과)는 신중한 자세이다.

'88년 9월에 개최된 종합에너지조사회 需給部會에서는 '87년도와 '88년도 상반기 수요증가가 주체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요의 신장이 본격화된 것이 '87년도 하반기부터이므로 '88년도 하반기의 신장률을 보기 전에 현행 예측을 의론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림〉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수정과 실적

그러나 그후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전력수요는 여전히 높은 신장률을 지속하였다. 이 때문에 에너지청에서는 '88년에 대해서 전년도 정도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89년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경기에 대해서는 4두마차라고 말하고 있는 개인소비, 민간설비투자, 주택건설, 공공투자중 주택과 공공투자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점, 미국의 상황이 나빠지면 국내경제에도 큰 영향이 온다는 점 등을 들어 데이터가 신뢰성을 갖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또 에너지消費原單位의 동향, 쾌적한 환경지향의 진전이 민생용 수요구조에 주는 영향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下向修正의 역사가 계속된 장기 에너지수급예측의 개정이었는데, 이번에 재검토하면 上向修正이라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할 것

이 틀림없다. 「건강진단」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결론은 '89년에나 나올 것 같다.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의 에너지需給 試算〉

케이스1이 표준케이스로 경제성장률을 年率 3.7%, 원유가격을 2000년 시점에서 25 \$ / 배럴, 2000년도의 원자력발전 규모를 4,600만kW로 설정한 것이다.

케이스 2는 원자력을 5,000만kW로, 케이스 3은 원자력을 4,000만kW로 한 것이다.

케이스 4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省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이 강력히 추진되는 케이스이다.

현행 장기에너지수급 예측에서는 2000년의 수급규모가 석유환산 5억4천만KJ인데, 케이스 1~3에서는 이것을 크게 웃돌고 있다.

〈表〉 1차에너지供給 총괄

年 度		實 績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1973		1987		2000		2000		2000		2000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實數	構成比
原 子 力	100萬kW	2	0.7	28	11.2	46	14.5	50	15.8	40	12.6	50	16.6
	億kWh	97		1,866		3,224		3,504		2,803		3,504	
水 力	100萬kW	22	5.0	35	4.8	42	4.5	42	4.5	42	4.5	42	4.9
	萬kW	1	0.0	18	0.1	70	0.2	70	0.2	70	0.2	70	6.2
石 炭	100萬t	80	15.9	103	17.3	129	16.1	127	15.9	133	16.6	120	16.2
	(一般炭)	11	2.0	37	5.7	70	8.2	68	8.0	74	8.7	67	8.5
	(原料炭)	69	13.9	66	11.6	59	7.9	59	7.9	59	7.9	53	7.6
L N G	100萬t	2	0.9	30	9.6	48	11.8	47	11.6	50	12.2	46	12.2
國內天然가스	億m ³	25	0.7	22	0.5	23	0.4	23	0.4	23	0.4	23	0.4
新에너지 및 기타	石油換算億kℓ	341	1.1	548	1.2	913	1.6	915	1.6	942	1.6	1,179	2.2
石 油	億kℓ	2.90	75.8	2.46	55.3	2.99	50.9	2.95	50.1	3.03	51.8	2.58	47.3
合 計	石油換算億kℓ	3.82	100.0	4.45	100.0	5.87	100.0	5.88	100.0	5.86	100.0	5.45	100.0
		1973~87				1987~2000		1987~2000		1987~2000		1987~2000	
1次供給신장율		1.10				2.16		2.17		2.15		1.57	
實質經濟成長率		3.93				3.75		3.75		3.75		3.75	
에너지/GNP彈性值		0.28				0.58		0.58		0.57		0.42	